

행복한 신앙인

대림 초 네 자루가 다 켜졌고 구유도 꾸며졌습니다. 구세주 탄생이 임박했다는 표시입니다. 탄생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 없는 탄생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준비를 가장 잘 하신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이렇게 찬미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2-45)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도착을 알아차렸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도착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은 여인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아기는 아기의 도착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기는 즐거워 뛰놀았고 어머니는 성령으로 가득 차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 덕분에 복을 받았고 믿음 덕분에 구세주를 잉태하고 주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대로 ‘행복한 신앙인’ 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미혼모로서 돌팔매질 당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성령으로 인해 동정 잉태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도 성모님처럼 굳게 믿고 산다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성모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여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나 역경,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평화를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야말로 내 안에 잉태되어 태어나실 구세주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성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야말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라고 칭송받은 성모님처럼 우리를 ‘행복한 신앙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최경용 신부

꼭 간직해야 할 말 “희망”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은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희망’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가 나올 것’ (제1독서)이라는 희망,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리라’ (제2독서와 복음)는 희망이 오늘 전례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사실 지난 4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구세주 오심을 애타게 기다렸다. 나름대로의 절제의 생활을 통해, 자선과 나눔의 삶을 통해 그리고 통회와 고해성사를 통해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우리는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들은 대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살아온 것이다. 마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의 희망을 지니고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오심에 대한 희망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기대와

희망 속에서 지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겪었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그들이 간직한 희망을 포기하게 했고, 좌절된 삶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과 사랑을 알려주고, 희망을 잃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했건만, 느껴지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이었기에 공허한 외침처럼 들리기도 하였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의 가시적 현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를 느낀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폭력과도 같은 정책 앞에서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개인적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많이 발견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은 묘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 느껴지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하느님을 원망하다 못해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일깨워준다. 구약의 모든 백성이 힘들어했던 그들의 삶에서 끝까지 구세주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라고 우리를 독려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꼭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에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의 성모님의 모습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굳은 신앙으로 남은 대림시기를 보냈으면 한다. 각자가 마음에 간직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신철 세례자 요한 신부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2월 13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57.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20.00 184(20)
성모님동산 (누계):금주\$25 (\$5530.00)
합 계 : \$ 877.00

나는 다음과 같은 영혼들을 사랑한다.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을 버리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영혼, 그러나 자기 자신의 타고난 성격, 환경,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나와 맞았던 진실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허약함을 인정하여 용기를 내어 내게 용서를 비는 영혼, 잘못을 인정한 후 나의 성심에 의탁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게 맡기며 새롭게 굳은 결심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속하는 영혼, 이러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나를 현양하는 영혼이다.

(성모님 말씀 중에서)

본 당 소 식

◎ 판공성사 및 미사 안내

오늘 미사집전과 판공성사를 토론토 한맘성당 백종연 바오로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저희 공동체에 본당 주임사제가 공석인 관계로 이번 성탄전야 및 성탄절 미사는 자체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되도록이면 현지성당인 St. Anthony Daniel Parish 미사에 저희 공동체가 단체로 참례해 주시길** 바라며 개인 사정으로 어려우신 교우분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성당이나 해밀턴 한인성당 미사에 참례하셔도 됩니다. 모쪼록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안토니다니엘성당 미사 시간 안내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오후 10:00

12월 25일 성탄미사 오전 8:30 / 10:30

12월 31일 새해 전야 미사 오후 5:00

1월 1일 새해 미사 오전 8:30 / 10:30

◎ 사목회의 안내

27일 주일 미사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사목위원과 구역장, 단체장의 참석을 요합니다.

▶2010년 달력이 도착하였습니다. 각 구역장은 사목회의 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순대 판매합니다. 예약은 이 은혜 이베타 자매에게 해주세요 (\$7.50/개) 배달은 27일에 합니다.

▶오는 27일에는 성탄 및 송년 친교 식사를 성모회에서 푸짐하게 준비 합니다. 쉬는 교우들에게도 연락하시어 모두 기쁨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 신년 모임이 2010년 1월 7일 (목)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2010년 매일미사책 구입 안내

▶비용;1년치 \$48.00 ▶신청 ; 박재영 선교부장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개인 사정으로 성가대 반주를 맡아주실 교우를 찾습니다. (0 명)

▶문의 : 성가대 단장 / 지휘자

+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지닌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분들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을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듯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겨보며

감사의 눈송이가 훨훨 날리는

기쁜 성탄 되시길 기원합니다.

로마노 신부님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오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단식하며 사람들을 가르치자, ‘마귀 들린 선생’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시자,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냈니다.

오늘날에도 편견은 여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속도’와 연관된 일입니다. 무엇이든 빠른 것이 좋은 것이고, 느린 것은 ‘안 좋은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그리하여 단번에 화끈하게 끝나는 것을 찾아 해매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교세를 확장해야 하고, ‘미사도 빨리’, ‘회합도 빨리’, 강론도 짧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은 그저 ‘빠른 것일 뿐’입니다. 느린 것도 그저 ‘느린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것이 빠르기만 하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빨리 하는 습관보다 ‘즐겁게 하는 습관’을 염두에 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즉흥 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물결입니다. 한 번쯤 멈춰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이들도 편견을 깨고 조금만 천천히 다가갔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너무 서둘렀기에 가까이 계신 구세주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묵상중에서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51호

2009. 12. 20.

대림 제 4 주일

해설 고영호

차주 해설 노재현

성 가

입 당 (97) 구원의 메시아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188) 생명의 양식

퇴 장 (90) 구세주 보내소서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주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독 서

12월 20일 김동규 김은옥

12월 27일 박용대 박명옥

봉 헌

12월 20일 최우석 최연옥

12월 27일 김동규 김은옥

복 사

12월 20일 류지흥 호 동

12월 27일 류지현 김건우

친 교

12월 20일 성모회와 캠프리지 구역

12월 27일 성모회 (송년 잔치)